

# 姜시장 “도깨비 방망이 있었으면...”

강은태 광주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테이블에 개인과 기관·업체의 해묵은 민원들이 봇물터지듯 등장하면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 중재하느라 진땀을 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지난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한 차례 빠짐 없이 모두 7차례에 걸쳐 32건의 민원을 듣고 중재에 나섰다.

지난 23일 강 시장은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비행기편으로 광주에 내려와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 5시부터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제기된 ▲남구 도로 조속 개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민원 ▲남구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 등 3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당 실·과 및 자치구·관련 기관·업체 관계자 사이에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남구 월산마을에서 온 민원인들이 “예산이 없더래 도로보상을 안

‘시민과의 대화’ 각종 민원 봇물... 해법찾기 진땀

타 시·군 지자체 “새 소통 방식” 벤치마킹 잇따라

해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강 시장은 “결국 돈이 없어 빚어진 일”이라며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으면 좋겠으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언제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지만,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데 만족하고 가시라”고 민원인을 달랬다.

인근 아파트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강 시장은 “미분양과 불경기로 인해 별 수 없는 일이며, 공매를 거쳐 이 사업을 인계할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때 가

서 논의해보자”고 설득했다.

마지막 민원으로 제기된 남구 백운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피해 보상은 다소 복잡했다. 주민 대표와 공사업체가 법정다툼까지 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의견 차가 너무 커 당장 해결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민원인 대표는 아파트 공사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심해 8억3250만원의 피해 보상과 진입로 확장 등 7가지를 요구했으며 공사업체와 LH 공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현장소장에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해 피해 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냐”고 물었고, 현장소장은 “현금 보상이

너무 커 아파트 페인트칠 등 대물로 값을 주면 대표와 협상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 시장은 민원인에게 “현금이 안 되면 대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 검토해봤느냐”고 물었고, 주민대표가 수긍하자 “대물로 갚아주면 현금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중재했다.

또 공사 관계자가 주민의 대표성을 문제 삼자 강 시장은 “대표성이 있든 없든, 세입자든 아니든 살고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강 시장이 당선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인기를 끌자 창원·양주·공주·동두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따가 들어 ‘시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민원 청취에 나서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5일 미 7함대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 항모전단 소속의 9200t급 이지스 구축함 맥켄벨함(DDG85·사진 위)이 부산항을 떠나 작전해역인 동해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동해서 연합훈련 돌입

조지 워싱턴호·독도함 주축 F-22 전투기 등 참가

미 자위대원 4명도 참관...北 “보복성전 개시할 것”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나흘간 일제로 25일 시작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를 비롯한 한·미 해군 함정 수척이 오늘 오전 7시에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부산항과 진해항에서 출항했으며, 미 7함대 소속 원자력잠수함 등 일부 함정은 동해상에서 합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으로 동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아시

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3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 4500t급 구축함(KDX-II)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800t급 잠수함, 해양탐사선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한다.

또 양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동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아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대함사격 훈련도 진행된다. 이 훈련에서는 실제 어뢰를 발사하고 이를 격파하기 위한 폭뢰 및 기만 기뢰 등이 투하된다.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령 등 장교 4명이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해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원의 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 훈련에 이어 9월 중으로 서해에서 고강도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점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에 ‘택시기사 건의’ 전달된 사연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택시기사의 건의가 우연한 기회에 전달됐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개편 이후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직원들과 업무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격려하기 위해 직접 비서

들을 찾았다. 뜻밖의 이 대통령 방문에 청와대에서 대학생 인턴사원으로 근무 중인 정 모양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마침 자신이 며칠 전 탕넌 택시의 기사에게서 들었던 건의사항을 전했다.

택시기사는 정 양이 행선지를 청와대로 밝히자 “그러면 혹시 대통령을 만나거든 꼭 말해 달라”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아는 사람들은 전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니 성공적으로 완성이 달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다

면 더욱이 4대강 사업을 꼭 신경 써서 해야겠다”면서 얘기를 전한 학생에게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답하더라고 택시기사에 말해 줄 수 있겠느냐”고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 택시기사에 다시 연락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 학생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 마침 연락처를 받아왔으니 대통령 말씀을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 사건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8항은 이어 “장관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장관들은 7월9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채택한 의장성명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에 대한 안보리 규탄(condemna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연합뉴스

## ARF ‘천안함 외교’ 北에 완패

공격 적시 대신 ‘규탄’ 빠져...남북 고려 ‘의장성명’ 채택

베트남 하노이에서 23일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폐막 하루만인 24일 오후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국 베트남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뒤 이날 오후 8시(현지시각)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

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공격(attack)’을 적시했으나 이 공격을 규탄(condemn)한다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표현은 담지 못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8항에서 “2010년 3월26일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 리비아서 한국인 선교사 체포돼

‘불법 선교 혐의’...도외준 한국인 농장주도

리비아에서 체류중이던 한국인 선교사가 최근 불법 선교 혐의로 리비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23일 “한국인 선교사 고모씨가 한달여전에 행방 불명돼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씨를 도운 한국인 농장주 최모씨도 최근 체포돼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씨는 현지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6일 외교공관을 통해 우리측에 통보됐으며 최씨는 지난 15일 현지 보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비아 당국은 이들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측이 다각도로 영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리비아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면적 330평 / 층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부산광역시 북구 금남로 1가 20-3